

아델, 그라미 시상식 5관왕에 올랐다

올해의레코드상 포함 베스트팝보컬앨범상 등 수상... "최대 경쟁자 비욘세는 나에겐 큰 원동력"

데이빗 보위 유작 '블랙스타' 베스트록퍼포먼스 등 5관왕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아델(Adelle)(29)이 그라미 시상식에서 5관왕에 오르며 '팝여왕' 자리에 올랐다.

아델은 12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제59회 그라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올해의레코드상 포함 올해의노래·올해의앨범·베스트팝솔로퍼포먼스·베스트팝보컬앨범상 등 5관왕에 올라 최다 수상자가 됐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비욘세는 베스트뮤직비디오·베스트어반컴퍼니퍼포먼스상을 받는데 그쳤다.

올해 그라미 시상식은 아델의 명실상부 대관사이었다는 평가다.

그는 이번 앨범 '25'의 대표곡이자 전 세계적 히트곡 '헬로'로 오프닝 무대를 열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유의 우아하면서 끈직한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스테이플스센터를 압도해 그가 왜 베스트팝솔로퍼포먼스상을 받았는지를 증명했다.

아델은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영국 뮤지션 조지 마이클(1963~2016) 헌정 공연을 위해 다시 한 번 무대에 올랐다.

그는 마이클의 '패스트 러브(Fast Love)'를 편곡해 부르던 중 그의 죽음에 감정이 북받쳐 잠시 노래를 중단하기도 했지만 다시 노래를 시작해 마무리해 큰 박수를 받았다.

아델은 올해의레코드상을 받으며 이번 그라미 시상식 최대 경쟁자였던 비욘세를 향해, "비욘세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받는다. 비욘세는 내게 큰 원동력이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아델이 12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제59회 그라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올해의레코드상 포함 올해의노래·올해의앨범·베스트팝솔로퍼포먼스·베스트팝보컬앨범상 등 5관왕에 올라 최다 수상자가 됐다.

그를 어머니로 삼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앨범 작업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함께한 작곡가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고 완성할 수 있었다"며 '헬로'의 작곡가인 그렉 커스틴에게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비욘세는 "그라미와 나의 가족에게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비록 비욘세는 주요 부문 수상에 실패했

지만, 민삭의 몸을 이끌고 앨범 '레모네이드'에 수록된 '러브 드라우트'(Love Drought) '샌드캐슬스'(Sandcastles) 두 곡을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여 세계 최고 디바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올해 그라미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세 명의 위대한 뮤지션을 추모하는 데 공을 들인 자리였다. '글램록'의 선구자인 데이빗 보위

(1947~2016)는 유작 '블랙스타'로 베스트록퍼포먼스·베스트얼터너티브뮤직앨범·베스트록송·베스트엔지니어드앨범·베스트레코딩패키지상 등 5관왕에 올랐다. 아델은 조지 마이클을 추모했고, 브루노 마스는 프린스(1958~2016) 헌정 공연을 통해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 /뉴시스

전북현대, 18일 2017시즌 출정식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출정식을 갖고 2017 시즌 시작을 알린다.

전북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전라북도청 대공연장에서 2017시즌 출정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출정식 1부에서는 시즌 목표와 각오를 밝히는 선수단의 출사표와 신입선수를 소개한다.

올 시즌 새 유니폼도 이날 공개한다.

2부에서는 사인화와 포토 존을 운영해 팬 스킨십을 진행한다.

전북 백승권 단장은 "시즌 첫 팬과의 만남을 앞두고 설레고 기대가 된다. 팬과 선수단 구단이 하나가 되어 K리그 클래식 우승을 함께 외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단은 출정식을 마치고 20일 전남 영암으로 마지막 국내 전지훈련을 떠난다.

/김민근기자

국기원, 유럽연합내 상표권 권리 찾기

국기원이 유럽연합(EU) 내에서 '국기원'이란 이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국기원은 13일 유럽연합 내에 국기원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독일의 고모 사범이 불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기원은 2013년 2월27일 유럽상표청에 국기원 상표를 출원하면서 2010년 이미 유럽연합 내에 국기원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파악하고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고모 사범은 유럽연합 내에서 국기원 상표를 사용한 한 사범을 고소해 2500유로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무단으로 등록된 국기원 상표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정작 국기원은 유럽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있어 '국기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국기원이 소송을 제기한지 2년여 만인 지난해 11월8일 유럽상표청은 국기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모 사범이 2개월 내 항소하지 않는다면 국기원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갖게 될 예정이어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다.

그러나 고모 사범이 지난달 10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국기원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은 또 한번 법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민근기자

찬스 더 래퍼, 그라미 신인상

정규 앨범 없이 믹스테이프 상 받은 최초 뮤지션 등극

그라미가 선정한 올해 최고 신인 뮤지션은 래퍼 찬스 더 래퍼(Chance The Rapper)(24)였다.

찬스 더 래퍼는 12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제59회 그라미 시상식에서 켄시 발라레니·체인스모커·매런 모리스·앤더슨 팩을 제치고 최우수 신인상을 받았다.

그는 신인상과 함께 베스트랩퍼퍼포먼스상까지 차지해 2관왕에 올랐다.

찬스 더 래퍼는 정규 앨범 한 장 내놓지 않고 오직 믹스테이프(정규 앨범이 아닌

비공식 앨범)로 이 상을 받은 최초의 뮤지션이 됐다.

시카고 출신인 찬스 더 래퍼는 2011년 데뷔했다.

마리화나를 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정학을 받은 경험을 음악에 녹여낸 첫 번째 믹스테이프 '#10DAY'가 그의 첫 앨범이다. 이후 믹스테이프 '액시드 랩'(ACID RAP)(2013), '컬러링 북'(Coloring Book)(2016)을 잇달아 내놓으며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가스펠에 힙합을 접목한 이른바 '가스펠



힙합을 하는 찬스 더 래퍼는 시원하게 내뿜는 목소리에 상대적으로 듣기 편한 음악을 한다는 평가다.

/뉴시스

삿포로 동계AG 출전 한국선수단 내일 출국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 본단이 15일 오전 결전지로 떠난다.

한국 선수단은 빙상·스키·아이스하키·바이애슬론·컬링 등 5개 종목(11개 세부종목)에 선수 142명과 임원 78명 등 총 220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5개를 획득해 종합 2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상환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선수단장을 맡았다. 15일에는 스피드스케이팅 25명, 프리스타일 스키 7명, 본부임원 16명 등 총 48명이 출국한다.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은 19일 개막해 28일까지 벌어진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